

시시각각 변하는 겨울 날씨...광주기상청 예보관들 긴장의 24시간

날마다 자료 8만건 분석...정확한 예보 압박감 극심

오보 땀 향의전화 스트레스 12명 중 9명 위장염 시달려

“매일 알려주면 뭐해? 믿을 수 없는 데...” “우리 할머니가 더 정확해. 슈퍼 컴퓨터는 인터넷 게임용 아니야?”, “차리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게 낫다.” 기상청 예보관들은 날씨 ‘오보’(誤報)를 낼 때마다 전화나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항의를 감수해야 한다.
지난 2일에도 그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지만 하늘에서는 무려 8cm가 쌓일 정도로 평평 내렸다. 기상청의 ‘청개구리’ 예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민호(38) 동네예보관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 면적에 비해 고도차이가 크다”며 “특히 서

해바다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데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언뜻 이해할 만 하지만 날씨 정보가 돈이고 생활인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광주기상청의 한파 특보(12월~2월)의 경우 지난 2012년 100%의 예보 정확도를 보였지만 지난 2013년에는 85.7%로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1·2월까지 정확도만 놓고 보면 66.7%까지 떨어지는 등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6일 새벽 3시 광주기상청은 풍랑·강풍주의보 예보를 내놓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황영하(53) 총괄예보관과 김민호 예보관, 한영욱(40) 관측주무관까지 3명은 예보시스템 모니터 9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1시간 주기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예보시스템을 예의주시하던 황 예보

관은 갑자기 분청에 전화를 걸었다. 예보관들의 눈은 1분마다 모니터를 실세 없이 옮겨다녔다. 갑자기 황 예보관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강풍주의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고 분청에 보고했다. 특보가 발령됐지만 황 예보관은 이날 오전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슈퍼컴퓨터로 나오는 자료 8만 건을 분석한 뒤 최종 판단을 예보관이 해야 하는 만큼 압박감도 대단하다.
특보 발표는 더하다. 인근 해상 여객선 운항을 전면 통제하는데, 오보 때 어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탓에 긴장해야 한다. 정확한 예보 뿐 아니라 시기도 정확해야 한다. 특보가 늦었다가 농가 비닐하우스와 주택 등 시설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설·집중호우 특보도 마찬가지다. 밤새 비상근무에 나섰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허탈해 할 수 있

어 특보를 내릴 때의 압박감은 대단하다는 게 기상청 예보관들의 설명이다.
예보가 틀린 경우도 적지 않다. 쏟아지는 시민 원성을 받으면서도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어 예보관들은 “서해바다를 확 때릴까 버리고 싶다”는 등 한숨을 내쉬는 게 전부터.
예보가 틀리면 쏟아지는 시민 원성은 기본, 자신의 개인 실적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2명 중 9명 가까운 예보관이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염을 앓고 있을 정도다.
황영하 총괄예보관은 “기상청이 오보 청이라는 ‘수모’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예보관들도 정확한 예보를 하기 위해 항상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핵폐기물 처리대책 없는 원자로 헤드 교체 중단하라”

영광 주민 500여명 한빛원전 앞 집회



6일 오전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어민 등 주민 500여명이 원전 당국의 부실한 발전소 운영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대형 핵폐기물 처리 대책도 없는 한빛원전은 즉각 한빛 3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를 중단하라.”

6일 오전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지역 어민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 영광원전 수협대책위는 집회를 열고 원전 당국의 ‘부실한’ 발전소 운영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헤드, 증기발생기 등 대형 핵폐기물 처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서 원자로 헤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임시로 마련한 시설에 대형 핵폐기물을 보관하기로 해 주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선박을 이용해 경주 방폐장으로 옮긴다는 주장인데 원전 측은 여태 어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도 없었다”면서 “핵 폐기물이 꼭 차면 즉각 원전 당국은 즉각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고했다.
어민들이 연초부터 원전 사업자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선 이유는 한빛원전 측이 대형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방사성 오염 물질이 포함된 부품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한빛 5·6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영광 앞바다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돼 어민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빛원전은 한빛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 당국과 약속했던 온배수 배출 기준을 십수 년째 지키지 않고 있으며, 준수를 촉구하는 환경당국의 명령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이날 ▲한빛 3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 중단 ▲대형 핵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고 포화시 즉각 발전소 가동 중단 ▲온배수 저감 대책 없는 한빛 5·6기 즉각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원전 측은 “교체되는 한빛 3호기 원자로 헤드는 방사성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인 후 격리된 시설에 보관된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라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고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한빛 3호기 원자로 헤드에 사용된 인코넬 600 재질이 고온·고압에서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어 실제 균열도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재질인 인코넬 690으로 만든 부품으로 이날 교체에 들어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5·18재단 민주적 운영 촉구 5·18기념재단 직원들이 6일 오전 5·18기념문화센터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 철회 등 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직행버스 기사 수당, 운행거리 기준 책정 적법” 판결

금호고속 기사 254명 항소심 패소

직행버스 운전기사 수당을 근로시간이 아닌 운행거리에 의해 책정기로 한 임금협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과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 상급심 판정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 2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금호고속이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따라 80만~1700만원씩 21억원 상당의 임금을 기사들

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임금협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로서 승무사원들에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면서 “승무사원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야간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사측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운행 일보 상의 출발·도착 시각 기재, 원형 또는 전자 타코메타기(운행기록기) 등으로도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운행거리가 수당을 산정하는 대체제 기준으로 합리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잇단 노인 농기계 사고...화순서도 80대 숨겨

전남 지난해 사고 391건이나

농촌 노인들이 농기계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5시40분께 화순군 동북면에서 운모(80)씨가 소형관리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중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과 농기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고령인 운씨가 혼자서 밭을 갈다가 실수로 추진 기어를 넣는 바람에 농기계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던 진모(74)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

겨졌다. 고령인 진씨가 톱질을 하다가 전 기톱에 오른쪽 다리를 다친 것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남에서는 총 504명이 농기계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 391명이 포함되는 등 사고가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겨울철(12~2월)에도 매년 50여 건씩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 주사용자가 노인일수록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회와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①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②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③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① 기본 경매 강의
②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광산구 월곡동 (토 208㎡, 건 250㎡) 감평가 1억4천3백 최저가 1억4천3백
- 북구 두암동 (토 198㎡, 건 512㎡) 감평가 3억9천8백 최저가 2억9천8백
-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토지

①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최저 41억(1,170평)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